

2023년 8월 3일 코로나19 백신 공급 민간 이전 대비 미국 복지부, 화이자 등 백신 3사에 합리적 가격책정 요청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-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 미국 내 코로나19 백신 제조업체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올 가을 민간 전환기간에 대비해 충분한 양의 백신과 합리적인 가격 책정 요청
- 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부는 여러 제조업체에 COVID-19 백신에 대한 연구, 개발 및 조달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. 또한 연방 정부가 후원하는 연구는 수십 년 동안 COVID-19 백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. 올 가을 시장에 출시되는 업데이트된 COVID-19 백신은 미국 정부 투자를 통해 얻은 가치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야 합니다. 가격 폭리는 COVID-19 대응을 통해 미국 국민이 귀 사에게 부여한 신뢰를 이용하는 행위입니다. ”
- 금년 3월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영국의학저널(BMJ)에 게재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mRNA 백신에 대한 투자액을 보면,
 -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mRNA 백신 개발, 생산 및 구매하기 위해 최소 319억 달러를 투자했으며,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에는 백신 구매에 292억 달러, 임상 지원에 22억 달러, 제조 및 기초/중개과학에 1억 8백만 달러 등 315억 달러가 투자됨.
 -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미국 정부는 백신 임상시험을 완료하는데 역사적인 재정적 투자를 했으며 안전성과 효능이 완전히 입증되기도 전인데도 불구하고 수억회 분량의 백신에 대한 사전 구매를 보증했음. 이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백신 개발기업의 위험을 줄였음.
- 미국 정부에서 주도한 코로나19 백신 배포는 8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전환되며 9월부터는 완전 민간에 이전됨.
 -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(CDC)가 금년 7월 6일 발표한 코로나19 백신 상업용 이전 가이드에 따르면, 8월 3일까지는 미국 정부가 구매해 배포하고 그 이후에는 민간의 상업용 백신으로 전환하되 백신 기업들은 9월 중순부터 하순까지는 새로 업데이트된 백신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.
 - 현재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사는 화이자, 모더나, 노바백스 3개사로 화이자는 금년 1분기 기준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64%에 달함. 화이자 및 모더나는 mRNA 기반 백신을 만드는 반면, 노바백스는 단백질 기반 백신을 만듦.

- 한편, 금년 1월 30일 미국 백악관은 코로나19 국가 비상사태(National Emergency)와 공중보건 비상사태(Public Health Emergency, PHE)가 2023년 5월 11일 종료된다고 발표한 바 있음.
 -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검사와 백신, 치료제 무료 제공이 종료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함.
 - 화이자 및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은 현재 미국 정부가 도즈 당 26 달러에 구매하고 있었으나 상업용 시장에서 판매되면 110달러~130달러에 가격이 형성되어 기존보다 4~5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임.

- 이에, 이번 7월 13일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미국 코로나19 백신 제조 3사 대표에게 보낸 이번 공문이 실제 기업들의 코로나19 백신 가격 책정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.

<참고자료>

1. Letter to COVID-19 Vaccine Manufacturers, HHS 보도자료, 2023.7.13
2. HHS Commercialization Transition Guide, HHS, 2023.7.6.
3. First on CNN: Updated Covid shot should be ready by 'latter part of September,' HHS secretary says in letter to manufacturers, CNN, 2023.7.13.
4. US public investment in development of mRNA covid-19 vaccines: retrospective cohort study, BMJ, 2023.3.1.
5. 미국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주는 의미,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, 2023.2.2